

시니어 순모임(1 월)

- ❖ 찬 양--- 찬송가 552 장 (아침 해가 뜰 때)---- 다같이
- ❖ 대표기도 ----- 말은이
- ❖ 감사제목 나누기 ----- 다같이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내용 나누기)
- ❖ 기도제목 나누기 ----- 다같이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 주세요)
- ❖ 말씀나누기 ----- 다같이
- ❖ 합심기도 ----- 다같이
 1. 2025 년 은혜로 함께하는 행복한 교회, 거룩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시니어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2. 블레싱 파크 개발을 위한 완전한 permits 이 조속히 나오며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 ❖ 광고 ----- 말은이
- ❖ 주기도문 ----- 다같이

📍 알려드립니다.

1. 2025 년이 은혜의 뿌리를 내리며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신년 기도카드를 작성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로비에서 기도카드를 픽업하여 교회 사무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2025 년에도 블레싱 파크를 위해 기도와 건축헌금을 위해 마음담아 동참해 주세요.

(통일 358)

새해(송구영신)
찬송가, 1908
보통으로

아침 해가 뜰 때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마 5:16)

552

SUNSHINE MINUTES: 7.7.7.7.REF.
찬송가, 1908

1. 아침 해가 뜰 때 만물 신 선하 여 라
 2. 새로 오는 광음 때 보람 있 게 보 내 고
 3. 한 번 가 는 면 안 오 는 밤 따 른 광 음 지 날 때 고
 4. 밤 낮 주 를 위 하 여 몸 과 맘 을 드 리 고

나 도 세 상 지 널 때 햇 빛 되 게 하 소 서
 주 의 일 시 간 바 쳐 서 햇 빛 되 게 하 소 서
 주 의 사 랑 나 타 내 햇 빛 되 게 하 소 서

후렴
 주 여 나 를 도 우 사 세 월 허 송 앓 고 서

어 든 세 상 지 널 때 햇 빛 되 게 하 소 서 아 멘

제자, 오직 사랑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3:34-35 절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살아가는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는 것,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것, 매순간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등 모든 것이 다 정말 귀한 일입니다. 20 세기의 가장 뛰어난 기독교 사상이 프랜시스 웨퍼는 “그리스도인의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표지는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결론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물어보면, 오늘 읽은 본문을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번째 예수님께서서는 제자의 삶을 살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 본문입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가장 중요한 한 마디, 그 말씀이 무엇까요?

요한복음 13:34-35 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지상에서 3 년의 사역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 한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모두가 피곤에 지쳐 주저 앉았을 때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죽음 앞에서 사랑을 몸소 보여 주시고 부탁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보여줘야 할 사랑의 수준입니다.

두번째,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영원한 하나님이 죽음의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마지막 사랑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서는 자가에서 자신을 못박는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방법이 있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3:35 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거룩한 비전입니다.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된 사람이 예수 공동체에 거는 기대는 사랑으로 하나되는 공동체입니다.

세번째, 제자는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삶으로 제자됨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보여준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은 함께 떡을 떼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을 향해 세상 사람들의 평가합니다. 사도행전 2:47 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한 사랑 공동체로 살아갈 때 세상이 교회를 칭송합니다.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2 세기 아테네 기독교 철학자 아리스티데스가 하드ريان 황제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황제여, 진리를 발견한 자는 다름 아닌 크리스천들입니다. 자기들을 능멸하는 사람들을 설득하여 친구로 삼으며, 원수들에게 열심히 자선을 베풍니다. 노예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나 겸손과 친절을 다합니다. 그들에게는 거짓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진 사람들은 못 가진 사람에게 아끼지 않고 내어 줍니다. 나그네가 눈에 띄면 자기네 집으로 맞이해 들이며 마치 친형제처럼 반깁니다. 그들은 욕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 형제라고 부릅니다. 오 황제여,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법칙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보여줘야 할 사랑이 이 모습이다

진정한 신앙은 교회 문을 나서면서 시작됩니다. 교회 안에서 외친 사랑을 증명하는 곳은 교회 문을 나설 때부터 내가 머무는 곳에서 제자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